

복합 무역 시대를 열어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유병규

한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2005년에 우리나라 수출입 총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74년에 100억 달러를 달성한 한국의 무역 규모가 31년 만에 무려 50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국내 무역은 한국이 7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 이후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우리 경제의 빠른 회생을 이루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규모가 작은 우리의 입장에서 무역은 앞으로도 국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국내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무역의 순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대외거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만큼 질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내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대외거래의 실속을 높이는 일이다. 대외거래의 이득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수출 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 상품량으로 결정되는 교역 조건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역 조건은 98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무역 구조를 지닌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밀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부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나친 '수입 유발적' 수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 무역의 주요한 취약점 중 하나는 외국에서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가공 조립한 다음 이를 수출하는 개도국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데 있다. 그 결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수출로 인해 발

생하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만큼 수출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국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 산업의 부품 국산화율이 45%에 불과해, 수출이 늘어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수출과 내수의 경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 대상국과 상품의 다양화를 이루어 무역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국내 수출 상품의 절반 정도는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의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에 팔리고 있다. 수입 역시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부터 대부분 이루어진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교역 대상이 일부 상품과 지역에 치우쳐 있는 것은 국내 경제의 대외 종속성과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세계 1등 상품이 부족한 것은 한국 무역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한다. 한국의 세계 1등 상품 수는 현재 중국, 미국, 일본의 각각 8%와 10% 그리고 20% 수준에 불과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한국이 무역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지식 사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출입 5,000억 달러 시대 이후 한국이 더 큰 무역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 무역' 시대를 쫓 피우는 데 있다. 우리의 의식과 제도, 관행을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가는 '문화의 선진화' 노력을 병행하는 일도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통상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